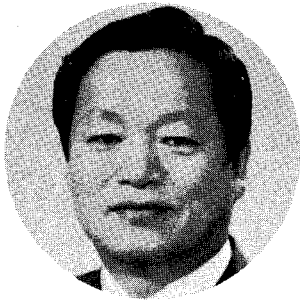


WEC 제14차 總會參加後記

우리나라의 國力을 誇示

WEC 總會 韓國 유치에 自信感



南 廷 一

韓電技術研究院 院長
(WEC技術研究委員會 委員)

서울 出發

여행 안내서에는 몬트리올의 가을이 서울보다 한두 달 빠르다고 써어있었다. 필자는 혹시 그 멋지다는 캐나다의 단풍을 이번 기회에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추석을 이국땅에서 보내야 한다는 가족들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9월 12일 金浦空港을 출발하였다.

이번 WEC 제14차 總會는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총회 이전에 개최되는 國際執行理事會(IEC)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필자가 선정되어 있었기에 한발 앞서 몬트리올에 도착하여야만 하였던 것이다. IEC는 사실상 WEC의 모든 일을 企劃, 審議, 決定하는 실무 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하고 우리나라에 유리한 정보를 획득하는 일은 WEC 總會에 참석하는 것에 못지않게 자못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IEC의 참석 대표로는 鄭根謨 韓國科學財團 理事長, 動力資源研究所 崔壽鉉 博士, 서울대학교 金浩卓 教授, 韓國에너지協會

金相演 사무국장과 필자가 참석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 특히 금년의 IEC 회의에서는 北韓이 회원국으로 참가를 신청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우리 대표단들은 한국을 떠날 때부터 가벼운 흥분을 억제할 수 없었다.

몬트리올은 필자가 처음 방문하는 도시여서 자못 기대가 컸다. 특히 북미 대륙에서는 유일하게 佛語 사용권인 퀘벡주의 주요도시로서 아메리카의 빠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필자는 유창한(?) 붙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고 부르면서 몬트리올 공항에 도착하였다. 간단한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된 시내 호텔에 이를 때까지 셔틀 버스 차장으로 내다본 몬트리올은 과연 아름다웠다. 유감스럽게도 계절은 필자의 기대를 깨고 아직 녹색의 자연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도시의 人工美는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조화를 보여 주었다. 흔히 北美의 도시들에서 느껴지는 비인간적인 황량함이 사뭇 덜하여 인상적이었으며 사방에서 들려오는 친근한 불어는 더욱 여행자의 감회를 새롭게 하는 듯 하였다.

숙소인 르 그랑(Le Grand) 호텔은 몬트리올 시내 중심부인 중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 韓國代表團의 대부분은 총회 기간 중 여기에 투숙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호텔 예약객 명단에는 우리 대표단의 이름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서 마치 總會 참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준 韓國에너지協議會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읽는 듯 하였다. 각자의 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여정으로 몬트리올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반가운 해우를 즐길 여유도 없이, 또한 미처 여독을 풀 시간도 없이 다음날부터 시작된 각종 회의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시종일관 金相演局長과 함께 행동하면서 IEC 會議에서의 우리 대표단의 역할에 대하여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국제집행이사회(IEC)

會議의 대부분은 몬트리올 구시가지의 입구에 위치한 국제 회의장(Palais des Congres)에서 있었는데 이곳은 어떤 형식의 모임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회의시설이었다. 마치 새로 개장된 우리 나라의 영동 종합전시장(KOEX)과 유사한 시설이었는데 넓은 공간에 비한다면 조명 시설과 스피커 시설, 비데오 방송 기재들을 제외한 내부 장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캐나다인들의 실용주의(pragmatism)을 엿볼 수 있었다. 사실상 외국의 대도시들에는 일찍부터 이러한 會議 및 展示會를 위한 전용 시설이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외국에 견줄만한 시설(KOEX)을 이룩한 셈이다. 그러나 외국의 시설들에 비교해 볼 때 KOEX 시설은 너무 호화롭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침 이곳 국제회의장 옆에는 차이나타운이 위치하였는데, 양식 식사에 지친 金局長과 필자는 이곳을 즐겨 애용하면서 객고를 달랠수 있었다. 우리 일행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였던 몬트리올 영사는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음식점을 소개시켜 주어서 우리들은 간간히 점심 식사 때에도 김치를 먹을 수 있는 호사스러움을 만끽하기도 하였다.

이번 IEC 회의에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관심을

끌었던 일은 北韓代表團과의 조우이었으리라.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정식으로 WEC 會員國으로 인준되었는데 우리 대표단은 이미 한국에서 결정했던대로 의연하게 북한의 가입을 지지하였다. 행인지 불행인지 북한의 의석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바로 옆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로서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사 정도를 교환할 수 있었다. 한가지 苦笑을 금치 못했던 해프닝은 주최측의 실수로 WEC 총회 참석자 人名錄에 북한의 국가명이 빠지고 그들의 명단이 모두 우리 나라 代表團 名簿에 함께 실려 버렸다는 점이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혹시 그들이 귀국하였을 때 곤란을 겪지나 않을까하고 안스러워 하였다. IEC 회의를 제외하고 總會 기간 중에는 북한 인사들을 거의 볼 수 없었는데, 그들은 영어가 서투르기 때문인지 호텔에만 박혀 있는 듯하였다. 미국땅에서 만나는 같은 동족으로서 그들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 IEC 회의에서는 WEC의 명칭을 World Energy Conference에서 World Energy Council로 바꾸는 등 여러가지 결의가 있었다(공식 귀국 보고서 참조). 우리 대표단의 개인적 활동으로는 鄭根謨博士께서 IEC 名譽 副委員長 자리에 유임하게 되었고, 金相演 국장은 Program Committee 산하 Energy Issues of Developing Countries의 極東地域 副委員長에 선임되었으며, 필자는 Conservation and Study Committee의 위원으로 유임되었다.

WEC 총회의 전체적 인상

WEC 제14차 총회의 개회식은 9월 17일 국제 회의장 총회장(Congress Hall)에서 약 5000명의 각국 대표들이 운집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거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總會 組織委員長(R. Drouin)의 개회 선언에 이어 WEC 총재(M. Boiteux)의 개막 연설, 캐나다 수상(B. Mulroney)과 Quebec 주 수상(R. Bourassa)의 연설 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연설의 중간중간에는 여흥 프로로 캐나다의 자연 경관을

대형 Video Screen에 투사하거나 소년소녀 합창단, 현대무용단, 인기 가수 등이 등장하여 캐나다의 질높은 문화를 소개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자칫 지루하기 쉬운 개회식을 지루한지 모르고 보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제 행사에서도 開會式에 이러한 여흥 프로그램을 짬짬이 첨가한다면 참석자들의 지루함을 달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손님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 나라의 문화를 소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開會式의 인상은 무엇보다도 주최측이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느 만큼의 시간을 소요하였을까 하고 생각해 볼 정도로 그들의 철저한 준비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금년 몬트리올 總會의 주제는 “Energy for Tomorrow”로 언뜻 생각하기에는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희망적인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는 암시를 풍기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Energy and Environment”가 오히려 이번 總會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표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처럼 環境問題가 Energy Congress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전세계적으로 oil 및 기타 에너지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지속됨으로써 에너지 수급문제가 더 이상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없게 되었으며, 그 대신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s)나 산성우(acid rain)와 같은 world environmental problems들이 서구인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環境問題를 고려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한다는 관점에서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한편, 이처럼 環境問題가 크게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WEC 會議가 전세계인의 energy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선진국들의 시각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대신 숫적으로 훨씬 많은 후진 개발도상국들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한다는 점이었다. WEC의 이러한 편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다른 한 예는 이번 總會에서 핵

에너지의 사용(즉 原子力發電所의 건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原子力의 사용은 마치 전세계적인 환경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강조되었는데, 구미에서는 국내적 문제로서 원자력발전소 建設問題가 국민적 호응을 감안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이러한 주장이 WEC 總會의 각종회의에서 先進國으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어 개발도상국의 여러나라들에게 原電建設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이번 총회에서 필자가 한 가지 크게 실망하였던 점은 각 나라마다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각국의 에너지 수급 문제와 이에 관련된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발표되지 못하고 단지 전세계적인 관점에서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진국의 문제는 자연히 가리워지고 선진국의 사람들만 활개치는 토론의 장이 되고 말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되었다. 한편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韓國代表團은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李 鳳瑞 動力資源部 長官의 인상적인 연설이나 鄭 根謨 博士의 무게있는 위치, 5편의 논문 제출 등으로 의의있는 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이웃 나라 日本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미미한 역할에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보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번 Montreal 총회에서는 주최 당사국인 캐나다의 입김과 캐나다의 한 주에 불과한 Quebec주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주지하다시피 캐나다는 energy 부국으로 energy와 energy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국가적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環境保全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번 總會에서도 이러한 캐나다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Exhibition에서도 캐나다의 資源과 資源開發에 관한 corner가 넓게 자리를 잡았으며, technical session에서는 지난 3월 29일 캐나다와 인접한 Alaska의 Prince William Sound에서 좌초한 Valdez 호의 oil 유출사고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특별발표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주최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總會는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개최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필요성을 강력히 일깨워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내에 WEC 總會를 한번 유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우리 代表團의 活動

금번 우리나라가 대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게 된 데에는 韓國에너지 協議會의 치밀한 사전 준비에 힘 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특히 金相演 사무국장은 노익장의 정력을 과시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검토하셨을 뿐만 아니라 몬트리올에서도 그 바쁜 회의 일정을 꼬박꼬박 챙기시는 등 후배인 필자가 따라가기 어려운 정력적인 활동을 보여 주셨다.

이번의 우리 代表團은 총 2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규모의 대형화에서 뿐 아니라 安秉華 韓電社長께서 代表團長을 맡으시고 名譽 代表團長으로 李鳳瑞 勳資部長官과 李寬前 科技處長官께서 참석하였으며, 또 鄭根謨 科學財團理事長이 참가하여 Technical Divison의 委員長을 맡는 등으로 한층 代表團의 무게가 더하여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對 WEC 관계수립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金善集 워즈덤 엔지니어링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러한 무게있는 代表團의 구성 때문이었는지 또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때문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代表團은 연일 초청받은 만찬회와 각테일 파티장을 순례하기에 바빴다. AECL(캐나다 원자력 공사)이나 GE사(General Electric)의 초청 만찬은 우리나라가 그들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외에 각국 대표단들이나 Hydro Quebec사,

Toshiba사 등의 여러 국제적인 회사들도 우리들을 초청하여 자못 흐뭇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만찬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임과 동시에 技術協力國으로서의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섰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들 대표단 한사람 한사람은 소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국력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외국인들은 그러한 만찬장에 부부동반이 보통이었는데 우리들은 아직 남성 일색의 집단이라는 점이였다. 우리들은 언제나 이러한 국제적 행사에 부부동반이 가능하게 될까?

총회와 만찬회장을 오가는 틈틈히 우리들은 産業視察에 참가할 수 있었다. 필자는 특히 캐나다의 國營 電力會社인 Hydro Quebec사 연구소 시찰을 빠뜨리지 않았다. HQ사의 System Control Center는 우리 韓電의 給電指令室에 해당하는데 몬트리올 시내 HQ사 기술 본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한반도의 몇배나 되는 드넓은 靑백주 전역의 發電所, 送電所, 變電所 등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완전히 컴퓨터로 처리하고 불과 소수의 직원이 급전 지령을 내리는 것을 볼 때 과연 북미주 최대의, 최신의 시설이구나 하고 감탄을 금하기 어려웠다. HQ사의 Research Institute는 몬트리올시 근교에 널찍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특히 High Power Research Lab과 High Voltage Research Lab의 시설은 불만하였다. 앞으로 우리 韓電의 技術研究院이 大德研究團地로 입주할 때를 대비하여 그들의 시설을 눈여겨 보느라 힘썼는데 보안 관계상 사진 촬영을 금하여 사진으로 남겨오지 못한 것이 커다란 아쉬움이 되었다.

總會의 기간 중 빠질 수 없었던 일 중의 한가지는 국제회의장에 마련된 에너지 관련 展示會場을 둘러 보는 것이였다. 여기에는 총 17개국에서 150여 회사, 연구소, 정부기관들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연구 및 사업활동에 대한 전시물을 제시하고 관람자들의 질문에 소상히 대답을 해주었다. 특히 다양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운전

관련되는 장비 및 기술 소개, 화력 발전소의 환경 보전에 관련된 전시물 등이 필자의 주의를 끌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기관도 참석하지 않아서 아쉽기 짝이 없었다. 차기 總會부터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韓國에너지協會가 회원사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독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몬트리올 落穂

이국의 도시에서 두 주일이 넘게 지내면서도 필자는 몬트리올 시내 구조조차 변변히 할 수 없었다. 이는 연일 계속되는 會議, 研究所 見學, 저녁 만찬 등의 바쁜 스케줄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친근감이 넘치는 도시이기에 안보아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마디로 몬트리올은 무척이나 깨끗한 도시로 여타 북미의 도시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도시 구석구석이 정돈되어 있었다. 시내를 오가는 차들은 모두 깨끗하였으며, 길에는 흑인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서양 미인들이 많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시민들은 매우 친절하였는데 그들의 감미로운 불어가 필자에게는 마치 노래하는 듯 느껴졌다. 캐나다의 도시들은 미국의 도시들과는 달리 밤에도 혼자 마음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만큼 안전하다. 몬트리올에서 필자는 야간에 시내를 거닐면서 이러한 훌륭한 치안상태를 스스로 점검(?) 해 보기도 하였다.

몬트리올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구시가지의 건축물들이 대단히 아름다워서 관광객의 필수 순례 코스라고 여행안내서에는 써어 있었다. 바쁜 일정에 쫓겨 시내 구경을 충분히 못한 것이 아쉽기만하다. 몬트리올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 몇 개월 동안은 거의 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몬트

리올 시민들은 시내 곳곳의 지하와 건물내에 대단위 쇼핑 센터를 구축하여 놓았는데 이를 Underground City라고 불렀다. 이곳에는 마치 우리나라 롯데쇼핑센터를 일렬로 펼쳐 놓은 것처럼 다양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 길이가 몇 KM나 되는 듯 하였다. 향후 몬트리올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한번쯤 구경하기를 권하고 싶다.

總會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우리 代表團들은 다시 각자의 일정에 맞추어 바쁜 귀국길을 서둘러야만 하였다. 그동안 시종 행동을 같이 하였던 金相演 局長은 영국을 거쳐 귀국길에, 필자는 바로 귀국을 서둘렀으며,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또 어떤 사람들은 뉴욕을 거쳐 귀로를 향하였다. 서로의 바쁜 일정들 때문에 멀고 먼 이국 땅에서 만났어도 같이 술잔 한번 기울일 기회도 없이 다시 헤어져야 하는것이 아쉽기 짝이 없었지만 우리들은 모두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귀국기에 몸을 실었다.

차기 總會의 참석을 위하여

제14차 總會에 참석하고 나서 필자가 느낀 소감은 WEC 總會가 국가간의 energy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만남의 광장이지 진지한 학문적 지식을 나누다거나 또는 선진국의 기술을 대충 구경만 하는 관광용 집회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우리 韓國 代表團은 차후의 總會부터는 참석자마다 자기의 소속 기관을 대표하여 總會에서 어떤 나라 대표로부터 어떤 정보를 부탁하여 얻을 것인지를 미리 결정한 후 참석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외국 정보는 되도록 많이 얻고 국내 정보는 가능한한 적게 주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되리라고 생각된다.

추후 總會에 論文을 제출하는 사람은 그 논문에 최신 연구 업적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제출된 논문은

개별 발표가 아니라 group presentation으로 발표 되기 때문에 짧아야 10분, 적으면 5분이 할당되고 아니면 presentation이 생략될 수도 있을 것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slide의 준비도 필요없는 것이 보통이다.

WEC Congress는 다른 어떤 국제적 모임보다도 선진국의 입김이 강력히 표현되는 모임으로 생각 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이른 나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 사회에서 선진국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마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장을 잘 이용한다면 개발도상국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WEC 韓國國內委員會는 앞으로 WEC의 여러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WEC 내에서 우리 국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추후 언젠가는 WEC Congress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韓國에너지協議會 여러분들의 뒷바라지에 감사드리며 줄문을 끝맺는다.

- (끝) -

(13P에서 계속)

準을 比較하는 係數의 發表가 있어 地球環境汚染의 深刻度를 判斷하는 좋은 尺度로 使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SO₂가스로 인한 酸性비의 量은 造物主의 影響1에 對해 人間의 影響이 10배며, CO₂가스로 인한 地球溫室效果는 造物主의 影響 1에 對해 人間의 分이 0.25배며, 放射性에 있어서는 100萬KW(e)의 原子爐가 1年에 放出하는 量을 1이라고 하면 地球의 地殼이 放出하는 量은 8千萬倍가 됩니다.

끝으로 最近에 가장 國際間에 深刻하게 論議되고 있는 地球溫暖化防止와 酸性비對策에 對해 各國은 國際協力下에 積極的으로 對應해 나가야하며 「省 에너지와 에너지使用效率向上」에 努力을 傾注해야 함은 勿論 長期原子力開發計劃을 原案대로 推進하면서 關聯技術開發과 國際的 技術協力を 強力促進하는 등 모든 努力을 發揮할 것을 強調합니다. 그리고 過去는 에너지의 安定確保에 力點을 두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에너지와 環境의 調和를 深思熟考해야 할 것입니다.

